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거란관계

羅 鐘 宇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 리 말
2. 건국 초의 동아시아의 정세
3. 10세기 고려의 대(對) 거란정책
4.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의 담판
5. 맺 는 말

1. 머 리 말

고려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민족의 침입과 이에 대한 항쟁이 많았던 시기이다. 전기만 하더라도 대륙의 5대·송·요(거란)·금(여진) 및 일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많은 충돌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거란의 침입은 이 시대 외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고려는 이 첫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시대를 일구어 놓았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무렵(918), 한반도에서는 후삼국이 정립하고 있었으며, 중국 대륙에서는 당나라가 하남의 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되고(907), 5대(907~960)의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이 무렵 양자강 이남에서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10여 개의 독립정권이 난립하면서 극히 분열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소위 「5대 10국 시대」라 부르게 된다. 이러한 난립은 송의 건국(960)으로 중원이 통일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10세기 초에는 대륙의 형세변동에 틈타 북방민족인 거란족의 흥기도 있었다. 원래 거란은 옛부터 요하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시라무렌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선비족의 하나이다. 이들의 존재는 북위(北魏)때부터 알려졌지만 그들이 성장하여 독립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는 중국대륙의 5대라는 혼란기의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원래 거란족은 8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각각 대인(大人)이 다스리며 3년마다 한사람을 선발하여 대간(大干=8부대인)으로 삼는 부족연합 사회였는데 당말에는 이 대간이 세습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잘 알려진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는 당시 대간으로 뛰어난 무공을 바탕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 거란부족의 실질적인 실력자로 통수권을 잡게 되었다. 이 때가 907년 초의 일이다.¹⁾ 이 때는 당이 멸망하고 후량이 건국되는 해였다.

한편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초부터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궁에 초기부터 지녀왔던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북진책의 이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에 따라 고구려 옛 땅이었던 만주대륙의 정세변화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주에 대하여 고려에 못지 않게 가진 존재가 거란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고있던 거란이 앞서 언급한 5대10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을 틈타 통일국가를 세운 다음 남만주 쪽으로의 진출

1) 『遼史』 卷1, 太祖紀 上.

은 필연적이었다. 그것은 거란의 본거지이며 요하 상류에 유입하는 시라무렌유역이 흥안령(興安嶺)의 산악으로 둘러 쌓여있어 만리장성을 넘어 하북(河北)지방으로 진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북으로 나아가 외몽고로 세력을 뻗어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생활에 가장 적합한 남만주로의 진출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건국된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이상을 향해 줄기차게 노력하였고 그 대상지역은 만주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거란 역시 고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국하여 만주에 대해서는 고려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고려와 거란은 그들이 차지하고 뺏어나가려는 목표가 서로 맞닿아 좋은 관계보다는 적대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는 강진철의 「고려초기의 대거란관계」(『史海』1, 1948)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의 북진정책, 고토회복에서 나타나는 발해의 존재는 하나의 명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상기는 「단구와의 항쟁」(『국사상의 제문제』 2집, 1959)에서 거란과의 관계를 1차 침입부터 3차 침입까지 그 경과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전쟁 그 자체의 침입과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이용범의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東洋學』7, 1977)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 건국 초부터 성종·현종 년간에 치른 전쟁 등을 취급하였는데, 특히 거란의 2차 침입 때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강동6주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동인의 「고려전기 북진정책의 추이」(『領土問題研究』2, 1985)는 고려가 북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대동강 이북 청천강 이남을 중요시하고, 뒤에는 다시 청천강 서북 압록강 이북을 '군사지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란과의 관계를 살폈다. 한규철의 「후삼국시대 고려와 거란관계」(『富山史叢』1, 1985)에서는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발해 멸망 전·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서성호의 「고려 태조대 對거란정책의 추이와 성격」(『역사와 현실』34, 1999)에서

는 태조의 고구려 계승의식의 바탕 위에 발해 멸망기와 멸망 후의 대 거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다룬 저서로는 金在滿의 『契丹·高麗關係史研究』(국학자료원, 1999)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저자가 연구해 온 논문들을 묶었으며 거란 성종의 고려침략, 강화 이후의 양국관계, 거란 흥종·도종·천조제 시대의 양국관계 등을 폭 넓게 다루었다. 다음으로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고구려연구회 편, 1999)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서희 서거 1000週를 기념하는 추모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여기는 「서희의 가계연구」(서길수),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박한설), 「서희와 성종대의 정치적 지배세력」(김당택), 「서희의 외교」(김위현), 「서희의 북방정책」(최규성),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서일범),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비교」(이재범), 「서희의 송나라 사행탐구」(윤명철), 「근대 외교사적 입장에서 본 서희」(이재석) 등이 실려있다. 모두가 서희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글들이 실렸다. 대체적으로 이상의 논저들이 그 동안 연구성과들이다.

고려와 거란은 10세기 초 거의 같은 시기에 건국하여 거란의 1차 침입이 있기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우호관계보다 적대관계를 지속하다가 드디어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황은 중국대륙이나 만주지역 모두 복잡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연구하는데는 이 한 세기 동안의 양국의 국내문제 문제 못지 않게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러한 과정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연구 테마에 필요한 부분들만 언급되었고 한 세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양국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거란의 1차 고려침입 이전의 한 세기 동안 양국관계를 당시에 양국과 관련된 주변국들과의 속에서 조명해 보면서 거의 한 세기 동안에 적대관계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관

계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립되어지는 과정을 거란 침입과 서희의 답판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히 서희의 답판이 단순한 외교적 수완보다 그 배경에 고려의 우수한 군사력과 송 건국후의 정세변화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2. 건국 초의 동아시아의 정세

(1) 고려 초의 북진정책

고려 태조는 즉위년(918)년부터 고구려의 고도(古都) 평양경영에 착수하여 황주(黃州)·봉주(鳳州)·해주(海州)·백주(白州)·염주(鹽州)의 백성을 평양에 옮겨 살게 하는 한편 평양에 대도호부(大都護府)를 두고 왕식렴과 광평시랑(廣評侍郎) 열평(列評)을 보내어 지키도록 하고, 서경(西京)이라고 부르고 서북 개척의 중심지로 삼았다.²⁾ 역시 『高麗史』에 보면 이제현의 찬(贊)에 충선왕의 태조 평(評)을 원용(援用)하여 말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후에 아직 김부(金傅)가 복종하지 않고, 견훤이 포로가 되기 전인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변지(邊地)를 순수(巡狩)하였다. 그 뜻이 또한 동명(東明)의 옛 땅을 내 집에서 쓰던 청전(靑氈) 같이 생각하고 반드시 석권(席捲)하여 이를 차지하려 하였으니...’라고 하였다.³⁾

이 때는 고려의 수도가 아직 철원에 있었으며 개경건설에 아직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경개척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때 태조의 고토회복(故土回復)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태조가 서경을 중시한 것은 여러 곳에 보

2) 『高麗史』 卷1, 太祖元年 9月 丙申條, 『高麗史節要』 卷1, 太祖元年 9月.

3) 『高麗史』 卷2, 太祖紀.

이지만 훈요십조 5항에도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운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인지라 마땅히 사중월(四仲月)에 순행하여 100일 이상 머물러 안녕을 이룩토록 하라”고 부탁을 하였다.⁴⁾

여하튼 당시 고려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신라와 후백제를 아우르지 못하여 남쪽의 후백제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928년(태조11) 7월의 삼년(三年)산성에서의 패전하고⁵⁾ 이어 11월에는 오어곡성(烏於谷城)이 후백제에 함락되어 군사 천 여명이 전사하였다.⁶⁾ 이어서 다음해 7월 견훤의 5천 군사가 의성부(義城府)를 공격으로 성주 장군 홍술(洪術)이 전사하기도 하였다.⁷⁾ 뿐만 아니라 강주(康州—晉州)를 구하러가던 원윤(元尹) 김상(金相)과 정조직랑(正朝直郎) 등이 초팔성(草八城—陝川郡草溪面)에서 성주 흥종(興宗)에게 패하여 김상은 전사하였다.⁸⁾ 이처럼 아직 후삼국을 통일하지도 않은 정립의 상태에서도 고토회복의 의지가 강렬하였음은 태조대의 축성기사에서도 살필 수 있다.

919년에는 평양을 보수하고 용강현에 성을 쌓은 것을 시작으로. 920년에는 함종현(咸從縣—강서), 921년에는 운남현(雲南縣), 922년에는 서경재성(西京在城—6년만에 완공됨), 925년에는 성주(成州—성천)·진국성(鎭國城—숙천), 929년에는 안정진(安定鎭—순안)·영청진(永淸鎭—영유)·안수진(安水鎭—개천)·흥덕진(興德鎭—은산)에 성을 쌓았으며, 930년(태조13)에는 청천강가의 안북부(安北部—안주)에 성을 쌓음으로서 고려의 서북 국경을 청천강까지 닿을 수 있게 하였다.⁹⁾

4) 『高麗史』 卷2, 世家 太祖2. 훈요십조에 대해서는 근래 위작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고려 초기의 서경에 대한 고려정부의 입장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5) 『高麗史』 卷1, 太祖11年 7月.

6) 『高麗史』 卷1, 太祖11年 11月條.

7) 『高麗史』 卷1, 太祖12年 7月條.

8) 『高麗史』 卷1, 太祖11年 正月條.

9) 徐日範, 『徐熙가 築城한 城郭과 淸川江 以北 防禦體系』,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 高句麗研究會(1999), 169쪽.

이처럼 고려 초의 한반도의 정세가 후삼국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조 왕건이 북진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일까. 즉위 초 태조는 궁예가 그 초기에 지녔던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북진책의 이상을 계승하여 실현코자 하여 평양 경영에 착수하고, 축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거란이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는 만주대륙의 정세 변화가 발생하자 태조는 거란의 다음 목표가 고려가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태조는 당시 거란의 상황이 만리장성을 넘어 북중국을 공략하는 등 어느 한곳에 집중할 수 없음을 노려 거란의 침입에 대한 북쪽의 방어태세를 확고히 갖추하고자 하였다. 당시 태조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후술하겠지만 발해를 친척의 나라라 생각하고¹⁰⁾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태조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발해가 연합하여 거란에 대항하고자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키자 거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갖게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려가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북진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토문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려와 거란과의 양국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려와 거란과의 외교관계가 발해 멸망으로 인하여 경색되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거란의 발해 공략(攻掠)

거란의 태조 야율아보기는 당 말에서 5대에 이르는 중국의 혼란기에 실위(室韋)·우궐(于厥)·여진(女眞) 등 주변부족과 만리장성을 넘어 북중국

10) 고려 태조의 발해에 대한 인식은 혼인관계를 통한 친척이라는 의식도 있겠지만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가진 것처럼 발해도 고구려 유민이 세웠기에 친척의 나라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을 공략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다.¹¹⁾ 특히 오늘날의 요녕, 하북, 산서성 등지에 대한 정복전쟁을 통하여 거란족을 통합하였는데 그가 권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돌론노르 부근의 천연염이었다. 그는 이 소금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다른 부족장과 자신에게 반대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진 무리들을 주살하고 정치혼란을 수습하였다(914).¹²⁾ 그리고 2년 뒤인 916년에 나라를 세워 거란이라고 하였다(937년에 遼라고 고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만리장성을 넘어 쳐들어갈 때마다 많은 한족을 사로잡아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거란 야율아보기는 한정미(韓廷徽)·강묵기(康默記)·노문진(盧文進) 등과 같은 망명 한족 지식인들을 등용하여 중국식 문물제도를 갖추는 한화정책운동(漢化政策運動)에 종사케 하였다.¹³⁾ 그리고 장차 중원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배후의 압박을 제거하고자 발해를 공격하였다.

거란이 서정(西征)을 하면서 발해를 평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주(幽州)등 중국을 정토 하는데 발해가 배후의 불안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한편 발해를 공격하고자 하면 중국이 배후의 불안요소가 되어, 태조(야율아보기)의 원정과정에서 항상 배후의 위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태조가 주변국들을 공격할 때 늘 배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배후를 먼저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발해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의 위협이 되는 서하(西夏)를 먼저 토벌함이 가하다는 탁진의 의견을 태조가 받아들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¹⁴⁾

발해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시 동북 여러 부족들이 모두 거란에 복속하고 있지만 오직 발해만이 복종하지 않아서 태조가 남정(南征)을 하

11) 위와 같음.

12) 『遼史』卷1, 太祖紀 上 8年 秋 7月條.

13) 최규성,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북진정책」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237쪽.

14) 『遼史』卷75, 耶律鐸臻傳에 보면 天贊三年 將伐渤海 鐸臻諫曰 陛下先事渤海 則西夏必躡吾後 請先西討 庶無後顧憂 太祖從之라 하였다.

고자 함에 발해가 배후를 습격해 올 것이 걱정이 되어 먼저 발해의 요동지방을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노문진 등으로 하여금 평주(平州)·영주(營州)를 거점으로 해서 연지(燕地)를 소요(騷擾)케 하는 전략을 쓰고자 했다는 것이다.¹⁵⁾ 발해도 일찍부터 거란의 이러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위협을 느껴 911년 거란이 해국(奚國)을 정벌하며 발해와 중원의 연결을 막자, 발해는 신라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였다. 『契丹國志』에 보면 “... 발해국왕 대인선(大諲譎)은 본래 해 및 거란과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거란) 태조가 처음에 일어나 8부를 병탄하고 계속하여 군사로서 해국을 병탄하자 대인선은 이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은밀히 신라제국(新羅諸國)과 더불어 서로 돕기로 약속하였다...”¹⁶⁾ 여기에서 「제국」이란 신라 외에 다른 나라라는 후량(後梁)등이라고 생각된다.¹⁷⁾ 그러나 거란은 영토확장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해가 924년 5월 요주(遼州)를 공격하여 자사를 살해하고 주민을 탈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거란은 발해의 요동지방을 공격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만에 끝났다.

이 무렵 발해는 다시 위기를 타개하고자 후당(後唐)에도 대우모(大禹謨)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¹⁸⁾ 이때 거란은 서방정벌을 끝내고 태조가 직접 925년 12월에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원정길에 나서 이듬해인 926년 1월에 발해는 멸망하였다. 당시 태조가 발해를 공격할 때는 회골(回鶻)·토번(吐蕃)·당항군(党項軍)과 더불어 신라군도 함께 나섰는데¹⁹⁾ 이는 신라가 거란의 발해 정벌에 협조해서 공을 세우면 그 논공으로 신라는 장차 닥쳐올 국제문제의 어려운 고비에서 거란의 후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²⁰⁾ 실제로 당시 신라는 국운이 기울어 어려움에

15) 金在滿, 『契丹·高麗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1999) 35쪽 참조.

16) 『契丹國志』 卷1, 太祖.

17) 『五代史』 卷2, 『梁本紀』 2 太祖下에 보면 ‘乾化 元年(911)과 二年(912)에 渤海遣使者來...’라고 하였다.

18) 위의 책, 『唐本紀』 5, 莊宗 下.

19) 『遼史』 卷2, 太祖紀 下 天顯 元年 2月條.

처했던 때로 이듬해인 927년에는 견훤이 금성을 공격하여 경애왕을 자살케 하고 경순왕을 세우던 때였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시 신라는 후당에도 자주 사절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협조로써 신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것 같다.

(3) 고려·거란과 중국과의 관계

1) 양국과 후당·후진과의 관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적대 감정과 함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929년에 그 때까지 비교적 무관심했던 중국의 중원 정부에 사절을 파견하게 된다.²¹⁾ 이 뒤에도 몇 차례의 사신이 고려로부터 후당에 갔고, 고려 태조는 933년(태조16) 3월에 후당으로부터 '고려국왕'의 책봉을 받게 되었다.²²⁾ 당시 북방에서 강성해지던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겉으로 안심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원의 중국조정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잠깐 당시의 후당의 정세를 살펴보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태조는 그곳에 괴뢰정부인 동단국(東丹國)을 세워 장남 배(倍=人皇王)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동단국 왕 배는 어머니 소태후(述律太后)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차남 야율덕광(耶律德光=태종)과의 권력쟁탈에서 패하여 후당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²³⁾ 이후로 거란은 후당을 견제(牽制)하기 시작하였으며, 후당은 자주 사신을 거란에 보냈다. 그런 가운데 933년 정월에 거란은 당항(党項)을 토벌하는 서정군(西征軍)을 일으

20) 김재만, 앞의책, 37쪽.

21) 『五代會要』卷30, 高麗傳 天成4年 8月條에 보면 당시 國信使節을 後唐에 보냈는데, 이때의 사절 규모가 상당하여 사절 52명과 金, 銀 등 여러 가지의 공물을 보냈다.

22) 『高麗史節要』卷1, 太祖16年 3月.

23) 『遼史』卷3, 太祖紀 上 天顯5年 11月 戊寅條에 東丹奏人皇王浮海適唐이라고 나와있다.

켜 3월에 크게 승리하였다. 이후로 당항은 물론 회골(回鶻) 등 서역 여러 나라가 거란과 더욱 밀접하게 통교하는 계기가 되었다. 934년 4월에는 후당 왕실에 정변이 일어나서 폐제(廢帝)가 민제(閔帝)를 살해하고 왕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로 후당 왕실은 매우 불안하게 권력다툼이 진행되었는데 936년 7월에는 후당의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 석경당(石敬瑭)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모의를 진행중에 후당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 후당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거란이 강성해져 후당도 거란의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고려에서 굳이 후당에 사신을 보내고 책봉을 받으려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점에 대해서는 앞의 고려 태조 16년에 후당에서 보내온 조서(詔書)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 조서 내용 가운데 고려가 기자조선과 고구려를 계승한 정통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왕건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북진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건은 거란이 강성해지면 질수록 후당 등 중원정부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인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에 당당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후당의 입장에서든 고려와 외교관계를 가짐으로 거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후당과 고려 사이를 순치지국(唇齒之國)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사실은 거란이 발해를 멸한 뒤 후당과 고려가 똑같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936년에 후당이 멸망하고 거란 태종의 도움으로 후진(後晉)이 건국되었다. 거란은 그 대가로 연운(燕雲)지방의 16개 주를 할양 받게되어 중원진출의 커다란 교두보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 연운 16주 지역은 오늘날 베이징 지방으로부터 산서성 부근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이 연운 16주를 얻게된 거란 태종은 유주(幽州)를 남경, 운주(雲州)를 서경으로 삼아 한족 관료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고 스스로는 중국본토의 영토확장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태종은 중국 전체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

24) 앞에서 언급한 고려 태조16년에 후당에서 보내온 조서에 있는 내용임.

다. 그런데 이무렵 937년(고려 태조20) 거란에서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다.²⁵⁾ 그런데 이 때의 거란 사신 파견에 대해서 고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거란에서는 2년 뒤인 939년에 다시 사신을 보내왔다.²⁶⁾ 그러나 고려에서는 이번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 한반도에서는 신라도, 후백제도 망하고 명실공히 고려가 통일한 상태였다. 고려로서는 내적으로는 통일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성해진 거란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거란의 영향아래 있는 후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후진이 건국된 이듬해인 937년 왕규(王規)와 형순(邢順)을 후진에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고²⁷⁾ 이듬해부터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였다.²⁸⁾ 뿐만 아니라 후진과의 교류에 더욱 열성을 보여서 같은 해인 939년에 9월에는 후진에 90여명의 사절단을 파견하고²⁹⁾ 941년에는 대상(大相)왕신일(王申一)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그리고 이 해에 고려 태조는 후진으로부터 정식 책봉까지 받았다.

또한 936년~943년(고려 태조19~26)에 후진에서 포교하던 서역 승 말라(襍囉)가 고려에 온 것을 기화로 왕건이 그를 극진히 예우하고 조용히 이르기를 ‘발해는 본래 나의 친척 나라인데 발해왕이 거란에 잡혔으니, 내가 후진 조정을 위하여 거란을 공격하여 발해왕을 구하고 싶고, 또 옛날의 원

25) 『遼史』卷3, 太宗 天顯12年 9月條에 보면 「遣使高麗」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 무슨 목적으로 사신이 왔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서성호는 그의 논문 「고려 태조대 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호(1999), 9쪽에서 거란은 후진 건국이후 더욱 높아진 자국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고려측의 태도 변화를 종용하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면 西征과 南略 그리고 만주까지도 지배하에 둔 거란이 오직 고려만이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후진과 가까이 하면서 거란과 멀리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6) 『遼史』卷4, 太宗 下會同2年 正月.

27) 『高麗史』卷2, 太祖20年.

28) 『高麗史節要』卷2, 太祖21年 7月.

29) 『冊府元龜』卷972, 外臣部 朝貢5 天福4年 9月條.

한을 갚고자 합니다. 선생께서 돌아가 천자에게 말하고 기일을 정해 함께 거란을 공격하기로 합시다'고 하였다.

말라가 돌아가 갖추어 아뢰었으나 고조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 때 고려 측의 명분은 친척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설원(雪冤)이었으며,³⁰⁾ 만약 거란과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 무도(無道)한 거란이 고려도 멸망시킬 것이라는 위기감도 함께 작용하였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고려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란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원의 중국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거란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거란의 입장에서도 중국대륙으로의 영토확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된 고려가 후진 등과 밀착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배후의 후환을 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후진에서 고조 석경당이 사망하고 출제(出帝) 중귀(重貴)가 사위(嗣位)한 뒤로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칭신(稱臣)하지 않겠다고 하여 양국관계에 틈이 생겼다. 거란 태종은 이에 943년 11월에 정벌군을 일으켰다. 초기의 전황은 예측불허였지만 결국 거란이 승리하게 되어 후진은 멸망하였다(947).

2) 양국과 송·여진과의 관계

후진을 멸망시킨 뒤 거란은 국호를 「대요(大遼)」로 고쳤다. 947년 4월 태종이 난성(藥城)에서 병사하자, 세종이 진양(鎭陽)에서 즉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왕실 내분이 일어났다.³¹⁾ 세종은 계속되는 불화 속에서 정

30) 『資治通鑑』卷285, 後晉紀 齊王開運2年 10月條.

31) 귀환도중 세종이 즉위하였다는 말이 전해지자 술율태후(述律太后)는 크게 노하여 세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즉위한 세종(兀欲)은 장자 배(倍)의 장자이므로 장손이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그가 동단원으로 있다가 후당으로 망명한 사실이 있어 그것을 거란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보고있었기에 그의 장자가 제위에 오른 것을 용납하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치다운 정치를 해보지 못한 채 4년 남짓만에 타살되고 태종의 장자인 술율(述律=穆宗)에게로 넘어 갔다. 목종은 북한(北漢)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후주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광윤(趙匡胤)이 후주를 멸하고 중원에서 송(宋)을 건국하였다. 송의 건국은 거란이나 북한에 큰 위협이 되었으니, 968년에는 송이 하동(河東)을 공격하고자하고, 태원(太原)을 포위하여 거란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다.³²⁾ 한편으로는 실위(室韋)·오길(烏吉) 등 주변 부족들의 반란도 자주 일어나서³³⁾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목종은 회주행궁(懷州行宮)에서 암살 당하였다(969).

황권은 다시 세종의 둘째 아들 종현(宗賢=景宗)이 이어 받았다. 이 당시 거란의 사위(嗣位)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종이 암살 당하는 바람에 목종이 황제권을 이어받았고, 목종이 암살 당하는 바람에 경종이 이어 받았다. 그런데 세종은 배(倍=人皇王)의 장자이며, 목종은 태종의 장자, 그리고 경종은 다시 세종계에서 나왔으니 그 동안 계속해서 황실 내부에서 모반사건과 끊임없는 알력이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종 때에는 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끊임없이 정쟁(政爭)이 계속되고 외적으로는 새로 건국된 송의 세력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 중원에서는 후주·송으로 이어 오면서 국력이 정비되어간 반면 거란은 약체 북한(北漢)과의 연합으로 가까스로 중원정부를 견제하고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송은 거란과는 비교적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한(北漢)과는 적대관계를 가지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평정을 위하여 출병하기에 이른다(976).³⁴⁾

당시 북한은 거란에게 원군을 요청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뒤로 북한은 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송의 정보를 거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송의 입장은 끝까지 단호하였다. 그렇기 때

32) 『遼史』卷7, 穆宗紀 下 應曆18年 9·10月條.

33) 『遼史』同上, 14年 9·12月條.

34) 『遼史』卷8, 景宗紀 上 保寧8年 9月條.

문에 거란이 북한문제로 송에 문책하여왔을 때 송에서는 북한이 역명(逆命)하니— 중원을 통치하는 송의 입장에서는 중국전체가 송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라는 사고였기 때문에 하동(河東)지방의 북한도 자기 국민인데 반역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짓고 있었던 것이다 — 당연히 문죄(問罪)해야 하며, 따라서 거란에게 북한 원조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쟁으로 평정하겠다고, 북한은 물론 거란에게도 도전하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³⁵⁾ 결국 이러한 송의 입장은 거란에게 북한으로부터 손을 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과 거란이 직접 부딪치는 양상을 가져왔다. 송의 군사들이 979년 4월 하동에 이르니 북한군은 흩어져 도주해 버리고 5월에는 송에 항복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다. 북한의 멸망으로 송과 거란은 직접 대결이 불가피해져서 몇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서로 승패를 주고받다가 980년 거란이 패전을 하고 돌아오다가 경종은 운주행재(雲州行在)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경종에 이어 즉위한 성종(聖宗: 983~1031)은 즉위하자마자 나라 이름을 거란으로 고치고, 983년 10월에 장차 고려를 치겠다하여 동경(東京—遼陽) 유수(留守) 야율말지(耶律末只)의 군대를 친히 사열하고, 소포령(蕭浦領), 소공덕(蕭肯德—恒德) 등에게 명하여 고려 북변에 있는 여진족을 토벌토록 하였다. 그 때에 소포령 등은 압록강 여진을 정벌하여 전과를 올렸는데, 거란군은 패주하는 여진을 고려의 서북지역인 덕창(德昌—博川부근)·덕성(德成—寧邊)·위화(威化—雲山)·광화(光化—秦川) 등지까지 추격하여 잡아갔다. 당시 거란군은 우리의 수비병에게 “여진이 항상 우리의 변방에 들어와 도둑질하므로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돌아간다”고 하였다.³⁶⁾ 이것이 거란의 제1차 여진 정벌이며, 985년 7월에 다시 “동으로 고려를 치겠다”하고 각 도에 군사를 모으도록 하였으나 8월에 이르러 요택(遼澤—요하 하류 일대의 습지)이 질으므로 고려 원정을 그만두고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35) 김재만, 앞의 책, 56쪽 참조.

36) 『高麗史節要』卷2, 成宗4年 5月條.

야율사진(耶律斜軫), 소공덕 등으로 여진을 정벌토록 하였으니 이것이 거란의 2차 여진 정벌이다. 이듬해 1월 이 원정에서 거란군은 포로 10여 만과 말 20여 만 필을 잡아갔다. 이러한 거란의 침략적 행위는 정안국과 여진족,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들을 위협하여 장차 고려에 대한 침략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거란은 990년에 압록강변에 위구(威寇)·진화(振化)·내원(來遠) 등의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리하여 거란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려와 접하게 되었다.

3. 10세기 고려의 대(對) 거란정책

(1) 건국 초 대 거란정책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고토회복이라는 북진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거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遼史』에 보면 '915년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보내왔고, 고려가 사신을 보내어 보검(寶劍)을 바쳤다'³⁷⁾는 기록과 918년에도 두 번씩이나 사신을 보내어 내공(來貢)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³⁸⁾ 그런데 이때는 모두 왕건 집권 이전 궁예 때이다.³⁹⁾ 그래서 이 때의 고려는 태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⁴⁰⁾ 태봉의 이러한 대거란 교류정책은, 숙청작업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지만⁴¹⁾ 다

37) 『遼史』 卷1, 太祖9年 10月.

38) 『遼史』 卷1, 太祖 神冊3年 2月, 『遼史』 卷70, 屬國表 神冊3年 3月.

39) 915~918년 당시의 국호는 摩震이었다. 그런데 『三國遺事』 王曆편에 보면 궁예가 901년에 국호를 高麗라 불렀고, 904년에 摩震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나와있다.

40) 송기호, 「발해 멸망기의 대외관계」, 『韓國史論』 17, 서울대학교국사학과(1987), 56쪽.

41)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1994), 137쪽.

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 후삼국 상황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런 외교책 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후백제뿐만 아니라 당시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던 신라조차도 중원 왕조의 전통적인 외교에 병행하여 새롭게 성장하던 거란 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당시 후삼국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는데 태봉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태봉의 대거란 정책은 왕건이 집권한 뒤에도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다. 국내적으로 불안한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되어지고 상황에서 대외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조 왕건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당분간 대외적 변화는 원치 않았으며 신홍 강국 거란과의 교류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⁴²⁾ 그런데 당시 거란의 입장에서 고려투 우호관계가 필요한 때였다. 거란은 중원 경략을 꿈꾸고 있었 으며 그러기 위해서 발해를 먼저 공격할 생각이었는데 이 발해 도모에 앞서 고려투의 우호관계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거란은 거란은 922년 (고려 태조5)에 낙타, 말, 전(氈—모직물)을 보내왔다.⁴³⁾ 이 사실은 왕건이 즉위하고 난 뒤 고려투 거란의 첫 접촉인데 이렇게 거란이 먼저 사신을 보내온 것은 왕건이 확실하게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한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 와 함께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자신들이 만주를 확보하는데 우선 시 간을 벌고 남쪽으로부터의 불안을 덜자는 속셈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당시의 거란 사정을 살펴보면 918년 2월에 옛 요양성을 수리하고 한민 (漢民)과 발해 사람들로 살도록 하였으며 동평군(東平郡)으로 고쳐서 방어 사(防禦使)를 두었다고 하였다.⁴⁴⁾ 또한 922년에는 유계(幽薊)지방을 평정 하기 위하여 출병시키기도 하였다.⁴⁵⁾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계주(薊州)민 호를 요주(遼州)로 옮겨서 요동과 요서 지방의 거점으로 삼아 발해를 공략

42) 서성호, 앞의논문, 5쪽 참조.

43) 『高麗史』卷1, 世家 太祖5年 2月.

44) 『遼史』卷2, 太祖 神冊4年 2月.

45) 『遼史』卷2, 太祖 下 天贊 元年~2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와 거란은 발해 멸망 전에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거란은 발해공략을 위해 고려의 중립이 필요했고, 고려는 아직 후삼국의 정립관계에서 그들의 국제적 지위확보를 위해서도 거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925년 고려가 거란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했던 공물의 보낸 목적도 후백제와 대결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런 상황에 발해에서 먼저 유주자사(刺史)장수실(張秀實)을 살해하고 거기에 살고있는 자들을 약탈하여가는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⁴⁷⁾ 물론 자사의 살해 사건은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기 몇 개월 전이지만 당시의 거란의 입장은 발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 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922년의 거란에서 보내온 사신에 대하여 고려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거란을 경계하면서 북방방어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구하였다고 보여진다.⁴⁸⁾ 그런데 924년경에는 동북지방의 거의 모든 지역들이 거란에 복속되어지게 된다.⁴⁹⁾ 이듬해인 925년에는 고려에서 공물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같은해 12월에 거란 태조는 발해를 평정하기 위하여 친정(親征)길에 올랐다. 발해의 친정길에는 회골·토번·당항군·신라군도 함께 하였다.⁵⁰⁾ 그리하여 이듬해(926) 1월에 발해는 멸망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2월에 고려는 거란에 조빙(朝聘)을 하고 있다.⁵¹⁾ 고려 태조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원래의 이

46) 『遼史』卷2, 太祖 下 天贊4年 10月條.

47) 위의책, 天贊3年 5月.

48)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나와있는 이 922년의 기록이 거란측 사료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이는 이때의 거란 사신에 대하여 고려측에서 거절하므로 거란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922년에는 西京在城을 쌓기 시작하고 있는데 장차 거란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 『契丹國志』卷1, 太祖 天贊3年 10月條.

50) 『遼史』卷2, 太祖 下 天顯 元年 2月條.

51) 『遼史』卷2, 太祖 下 天顯 元年2月條.

상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란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발해 멸망직후 외적으로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큰 적대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고려는 거란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로 돌아서게 된다.

이와 같은 고려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거란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는 후진에 대하여는 많은 사절과 방물을 보내고 있지만 유독 거란에 대해서는 냉담하였기에 거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려와 관계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여도 응답이 없으므로, 거란은 942년에 30명의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마리를 보내어 환심을 사고 회유하려 하였다. 이렇게 고려의 환심을 사려는 이면에는 후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후진과 가까운 관계인 고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으므로 상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신을 모두 섬에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밑에서 굶어죽게 함으로써 거란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⁵²⁾ 이러한 태조 왕건의 외교책에 대하여 이용범은 “...그의 통일과정에서 많은 여진군을 포섭하였고 다시 신라 유민이나 경략한 후백제의 사후조처(事後措處)에서 보여주었던 왕건의 포용력에 비하면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외교책이었다”⁵³⁾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성호 이익의 견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익은 “고려 태조의 대(對)거란감정은 결코 발해의 토멸(討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실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데 그 진의(眞意)가 있었던 것이며...”⁵⁴⁾라고 하였다. 이점에 대해서 안정복은 “거란이 사신을 보내 온 것은 고려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왕이 거란의 사신을 유배시

52) 『高麗史節要』 卷1, 太祖25年 10月條.

53) 李龍範, 앞의 논문, 41쪽.

54) 李漢, 『星湖僿說類選』 卷8, 下 史門 夷狄渤海條.

키고 낙타를 굶겨 죽인 것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사건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리에 의거해서 땅을 되찾겠다는 뜻이었으니 실로 그 명분이 뚜렷하고 비장했다.”⁵⁵⁾고 하였다. 이익이나 안정복 모두 18세기에 활동한 실학자들인데 그들은 모두 고토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태조 왕건은 당시 중국과 만주의 형세변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거란에 취한 태도는 끝까지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그의 뜻은 거란이 발해를 멸함과 동시에 발해유민을 받아들이면서 명분 있는 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발해의 유민은 925년 3월에 거란 태조가 서방정벌에서 돌아오자 그 해 9월부터 고려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⁵⁷⁾ 발해의 유민들은 926년 발해가 멸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에 내투(來投)하기 시작하였는데, 1116년(예종11)까지 191년간에 걸쳐 약 42,345명이 내투 하여 왔으며, 특히 태조 때에 31,873명과 경종 때 10,000명이 내투 하여와서 발해 멸망 직후에 집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⁸⁾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태조 때에 집중적으로 고려로 들어 온 것은 당시 발해인들도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이고, 그들도 고구려의 후예로써 동족(同族)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태조 왕건의 발해에 대한 감정도 같았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감정이 혼요

55) 안정복, 『東史綱目』 卷6, 上 太祖 壬寅25年條.

56) 고려의 거란에 대한 감정은 발해가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도 좋은 것이 아니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조 왕건은 즉위 초부터 북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경을 중요시하여 도호부를 설치하고 부근의 성을 수리하거나 쌓기도 하였다. 그런데 발해가 거란에 의해 무너지고 거란과 직접 접하게 되자 고토 회복의 명분을 발해를 멸한 것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발해와 고려의 혼인관계를 들어 양국관계가 血盟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51의 기록에 보면, 고려 태조가 말라를 통하여 후진 고조에게 말하기를 「발해와 나는 혼인한 사이인데 발해왕이 거란에 잡혔으니…」라고 하여 혼인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때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송기호, 앞의 논문, 56~63 참조]

57) 『高麗史』 卷1, 太祖8年 9月條에 보면 발해장군 申德 등 500인이 내투하였다. 또한 庚子에 발해의 禮部卿 大和鈞 均老와 司政 大元鈞 등이 民1백호를 거느리고 내투하였다고 하였다.

58) 韓圭哲, 「高麗來投·來往契丹人」, 『韓國史研究』 47, (1984).

십조 4항의 “거란은 금수(禽獸)와 같은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거란에 대한 태조 때의 감정은 942년 만부교 사건 이후부터 990년대에 들어서 군사적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80여년간 대립의 형세가 계속 되어졌다.

(2) 혜종-경종대의 대(對) 거란관계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대에 고려가 거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고려사』에서 살펴보면, 945년(고려 혜종2)에 후진에서 보내온 「혜종책왕척서」 가운데

고려국왕에게 칙하기를 “지난해 3월 1일에 친히 단주(澶州)에 행차하여 거란을 쳐서 이긴 것을 하례(賀禮)한 일도 자세히 알았노라. 거란이 신의를 어기고 침범을 마음대로 하므로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평정하였다. …경(卿)이 멀리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자못 분기(憤氣)를 발하여 장표(章表)를 보내와 경하(慶賀)하니 충성을 가상히 여겨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⁵⁹⁾

946년(고려 정종 원년)에 거란이 후진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자 곧이어 고려에 침입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947년 광군사(光軍司)를 설치하고 광군 30만을 편성하여 침입에 대처하였다.⁶⁰⁾ 그리고 같은 해에 서경에

59) 『高麗史』 卷2 惠宗2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부연하면, 거란 태종때에 후진에서는 고조 석경당이 죽고 出帝 重貴가 위를 이어받았는데 출제는 거란에 대하여 ‘칭신(稱臣)’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국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一進一退가 계속되었는데 당시 는 후진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양국간의 전쟁은 결국 거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60) 『高麗史』 卷81, 兵志, 兵制에 보면 定宗二年(947), 以契丹將侵 選軍三十萬 號光軍 置光

왕성(王城)을 쌓았다.⁶¹⁾ 948년(정종3)에는 동여진으로부터 말 700마리를 수입하여 군마로 삼았다.⁶²⁾

고려는 광종대에 접어들어서도 거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정세 변동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951년 후주(後周)가 건국되자 바로 그해부터 후주의 년호를 사용하고,⁶³⁾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960년에는 후주를 멸하고 송(宋)이 건국되자 송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962년(고려 광종13)에는 광평시랑(廣評侍郎) 이흥우(李興祐)를 송에 보내어 방물을 진상하였다.⁶⁴⁾ 963년에는 송 태조가 책명사(冊命史)를 보냈으나 풍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사(溺死)하였다.⁶⁵⁾ 이후로도 고려와 송은 자주 사신의 왕래가 있었는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송의 문물 수입과 거란의 견제가 이유였고, 송의 입장에서는 거란의 견제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982년(성종 원년)에 최승노가 올린 상소에 보면

“거란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수교를 해야되고, 또 그들이 먼저 사신을 보내오기도 하였지만 수교를 맺지 않은 것은(과거에) 말해와도 화친을 하다가 갑자기 변하여 말해를 멸망시켰으므로 그 무도(無道)함이 심하여 더불어 교빙할 수 없다...”⁶⁶⁾고 하고 있다.

軍司 라 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30만을 선발하고 광군사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란이 침입할 것이라는 정보는 후진에 유학중에 거란에 잡혀간 최광윤(崔光胤)이 인편에 글로써 알려온 것이었다(『高麗史節要』卷2, 定宗2年).

61) 『高麗史』卷2, 定宗2年 春.

62) 『高麗史』, 定宗3年 9月.

63) 『高麗史節要』卷2 光宗2年條. 광종은 치세기간에 峻豐이라는 독자적인 년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송의 년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64) 『高麗史』卷2, 光宗13年條.

65) 『高麗史』卷2, 光宗14年條에 보면, 당시 冊命 사절단으로 90여명을 보냈는데 오로지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 책명사 時贊만이 살아남고 모두 익사하였다고 하였다.

66) 『高麗史』卷93, 崔承老列傳.

당시 거란이 송을 파하는 것을 보면서 인접국이기 때문에 수교는 해야되지만 당장 하지는 않고 경계하면서 거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가 올린 시무28조의 제1조에서 서북면의 방비를 역설하고 있다. 한편 거란은 송과의 계속되는 충돌 속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송과 연합해 있는 고려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여서 자칫하면 협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먼저 고려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983년에는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⁶⁷⁾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 984년 고려에 사람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협의하고자 제의하고 있다.⁶⁸⁾ 바로 이 무렵인 986년에 송에서 태종이 감찰어사(監察御使) 한국화(韓國華)를 고려에 파견하여 함께 힘을 모아 거란을 정벌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만방(萬邦)이 모두 자신의 통치권 아래 있는데, 원래 중국의 영토인 유주(幽州)·계주(薊州)지방만은 거란이 점령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을 섬멸하고자 하는데, 고려도 중국과 오랜 우호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거란의 침입으로 입은 분함을 풀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고려에서는 군사들을 타일러 송과 협조하여 거란을 평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고려에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망설이자 한국화가 위덕(威德)으로 독촉하므로 마지못해 허락하고 군사를 일으켜 군사를 일으켜 서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⁷⁰⁾ 출병을 약속한 고려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송에서 한국화를 파견하여 거란에 대한 협공을 제의해 왔던 986년(고려 성종5)에 거란이 궤열(厥烈)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는데 고려에서는 단호히 거절하였다.⁷¹⁾ 여하튼 거란에 대하여는 거절하고, 송에 대하

67) 『遼史』卷10, 聖宗紀 1 統和元年 10月條에 보면 「(거란의) 황제가 장차 고려를 정벌하고자 친히 동경유수 耶律末只에 소속된 兵馬를 열람했다고 하였다.

68) 長亮采 篇 『補遼史交聘表』 統和 2年條에 보면 翰林學士 耶律純使를 고려에 보내어 국경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69) 『宋史』卷487, 列傳 第246, 外國3, 高麗條.

70) 『高麗史節要』, 成宗4年 5月條.

여는 비록 출병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출병을 승낙한 사실은 거란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고 불안한 것이었다.

4.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의 담판

(1) 거란의 침입

983년 거란의 성종이 즉위하던 해에 고려를 치겠다고 동경유수 야율말지의 병마를 사열하고 동정을 명하였을 때 거란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여진을 먼저 공격한 것은 앞에서 밝혔다. 거란은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를 공격하기에 앞서 여러 여진과 송의 교통로(航路)를 봉쇄하기 위하여 압록강변의 요지에 위구(威寇)·진화(振化)·내원(來遠)의 세 성을 쌓아 여진 내지 정안국(定安國)과 송과의 통교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여진문제 해결에 일단락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991년(聖宗統和9年)경 송과의 전쟁에서 송을 크게 대패시켰다.⁷²⁾ 이로써 송·여진 모두로부터의 불안을 제거하게 된 거란은 마침내 고려문제에 전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려정부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귀화하는 여진인들을 포섭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변방의 방어를 보강하고 고려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즉, 984년 거란의 소포령(蕭蒲領) 등이 압록강변의 여진을 공격할 때, 그 침입을 피하여 고려경내로 들어온 여진인들을 보호해주고 한편 압록강 방어 공사를 적극 추진시켰다. 한편 고려에 위협조적이거

71) 『高麗史』卷3, 成宗5年 正月條.

72) 김상기,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1959), 116쪽.

나 거란과의 친근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백두산 밖으로 축출하였다.⁷³⁾

993년(고려 성종12) 서북계의 여진이 보고하기를 거란이 군사를 동원하여 침입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이 속이는 계책이라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⁷⁴⁾ 그런데 같은 해 8월에 여진이 또다시 거란병이 쳐들어 올 것을 보고해 왔다. 그때야 고려조정에서는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를 각 도에 보내어 군마를 징집하여 10월에 시중 박양유(侍中 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로, 내사시랑 서희(內史侍郎 徐熙)를 중군사(中軍使)로, 문하시랑 최량(門下侍郎 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임명하여 북계(北界)로 나아가 거란군을 막도록 하였다.⁷⁵⁾ 또한 윤(閏) 10월에는 성종도 서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안북부(安北部—安州)로 가서 전선의 정세를 살폈다. 그 때에 거란 성종(聖宗)의 사위로, 동경(東京—遼陽)유수이며, 고려침략의 총사령관인 소손녕(蕭遜寧—이름은 恒德)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봉산군(蓬山郡)을 공격하였다.⁷⁶⁾

당시 봉산에는 선봉군(先鋒軍)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고려의 선봉군은 선봉군사(先鋒軍使—從4品)인 윤서안(尹庶顔)이 지휘하고 있었다. 선봉군은 고려방어군인 3군의 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역량이 있었다. 선봉군의 기지는 봉산성이며 여기에는 선봉군과 수성군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부근의 백성들이 성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 봉산성에서 소손녕이 이끄는 적의 주력부대와 고려의 선봉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봉산 전투가 고려와 거란의 첫 전투라 할 수 있다.⁷⁷⁾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73) 『高麗史』卷3, 成宗10年 10月條에 보면 「逐鴨綠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라 하여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쫓아내어 살게 하였다고 하였다. 아마 이 사실은 991년에 압록강 어구에 거란이 쌓았던 3성을 칠 때 협력한 자들은 포섭하고 반대하는 여진들은 백두산 밖으로 축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4) 『高麗史』卷3, 成宗12年 5月.

75) 『高麗史節要』卷2, 成宗12年 10月.

76) 『高麗史節要』卷2, 成宗12年 閏10月.

77) 김재홍,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려편- 백산자료원, 33쪽.

승리하지 못했지만 거란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함부로 더 진격하지 못하고 담판에 응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⁷⁸⁾ 이 전투에서 선봉군사 윤서안이 포로가 되었다. 고려 성종은 이 소식을 접하고 서경으로 돌아왔다.⁷⁹⁾

봉산전투가 실패하자 고려 방어군의 중군사인 서희가 군사를 이끌고 봉산군을 구원하러 나섰다. 서희의 부대는 비록 봉산성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적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하여 적들은 더 전진하지 못한 채 항복하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고려사』에 보면 소손녕이 성언(聲言)하기를 “대조(大朝—거란을 가리킴)는 이미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그 강역(疆域)을 침탈하므로 이에 토벌코자하는 것이다”⁸⁰⁾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침략구실로써 고려가 옛 고구려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글을 보내어 “대조는 사망을 통일하는데 아직 귀부(歸附)치 아니하는 자는 기어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항복하라”⁸¹⁾하였으니 이것은 침략의 목적이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고려도 항복하라는 협박이었다.

그리고 다시 글을 보내어 “80만의 병사가 지금 쳐내려가고 있으니 만일 강을 건너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쳐서 멸할 터이니 군신들은 속히 나와 군영 앞에 나와서 항복하라”⁸²⁾고도 하였다.

거란의 큰소리가 허세라는 것을 알아차린 서희는 성종에게 화해가 가능할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성종은 예빈소경 이몽전(禮賓少卿 李蒙翥)을 거란의 군영에 보내어 화해를 청하였다. 이에 이몽전이 거란의 군영에 들어가 내침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소손녕이 대답하기를 “너희 나라에

78) 위와 같음.

79) 『高麗史』 卷94, 列傳 徐熙傳.

80) 위와 같음.

81) 위와 같음.

82) 위와 같음. 여기에서 8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소손녕의 허세이며 20~30만 정도로 추산한다(김재홍, 『조선인민의반침략투쟁사』 -고려편-, 백산자료원, 29쪽), 김재만도 『거란민족발전사의연구』 4편에서 당시 거란군을 10~15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서는 백성을 돌보지 않음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천벌을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만일 강화를 맺고 싶거든 속히 나와서 항복하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늘어놓았다.⁸³⁾ 이몽전이 돌아와 보고를 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신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어떤 자는 “왕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고, 중신(重臣)을 시켜 항복을 빌자”고 하였고,⁸⁴⁾ 또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황주(黃州)로부터 절령(자바령)에 이르는 선으로 국경선을 정하자”⁸⁵⁾ 등 항복론(降服論)과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割地論)이 나왔다. 이 때 성종은 땅을 떼어주자는 할지론의 의견을 쫓아서 서경 창고의 쌀을 주민들에게 내어주고 나머지는 대동강에 버리도록 명하였다.⁸⁶⁾

이에 서회는 항전을 주장하면서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 또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강하고 약한 데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잘 알아서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곡식을 버리라 하십니까. 곡식은 백성의 생명이오니 설사 적군에 이용이 될지라도 강물에 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⁸⁷⁾라고 하니 성종도 그 말을 따라 강물에 던지는 것을 중지케 하였다. 또한 서회는 상주하여 말하기를,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북부에 이르는 수 백리의 땅은 모두 생여진(生女眞)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광종께서 도로 찾아 가주(嘉州)·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았는데, 지금 거란이 침공하려는 의도는 이 두 성을 빼앗으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를 공갈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병력이 강성하게 보이는 것만 보고 선뜻 서경이북의 땅을 떼어준다면 그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하며 더구나 삼각산 이북

83) 『高麗史』, 徐熙傳.

84) 『高麗史』, 列傳 徐熙傳.

85) 위와 같음.

86) 위와 같음.

87) 『高麗史節要』 卷2, 成宗12年 10月條.

도 고구려의 옛 땅 인데, 그것까지 욕심을 낸다면 그대로 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국왕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고 저희로 하여금 적과 더불어 한번 싸워 본 뒤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⁸⁸⁾ 이에 전 민관어사(前 民官御事) 이지백(李知白)도 서희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국토를 적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만고의 수치라고 하면서 싸워본 뒤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인 강력한 주장으로 「항복론」과 「할지론」에서 주전론으로 바뀌어 항전을 결정하고 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서희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논하기를 “...먼저 싸운 뒤에 화친을 요구하면 화친이 성립된다. 만약 그 기세만 보고 놀래어 화친만 할려고 일삼는다면, 적은 우리를 한없이 농락하고 능멸할 것이다. 이때에 만약 대도수의 승리와 서희의 굴복하지 않는 의기가 없었더라면, 화친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적의 끝없는 요구를 채우느라 갖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니, 이 일은 후세에 거울로 삼을 만 하다”⁸⁹⁾고 한 것은 실로 당시 싸울 것을 주장한 서희를 말할 바로 새긴 것이라 하겠다.

(2) 서희의 담판

봉산전투 후 거란군영에 이몽전이 다녀간 뒤 아무런 소식이 없으므로 소손녕은 군사작전을 시도하여 봉산성에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주력의 나머지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안용진(安戎鎭)으로 다른 하나는 연주성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거란군이 안용진으로 먼저 침입한 것은 안용진이 청천강 연안의 3성(안북부, 안용진, 조양진)과 북계의 여러 성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군사도 적

88) 『高麗史』, 列傳 徐熙傳.

89) 『東史綱目』 卷6, 下 成宗癸巳12年條.

게 배치되어 있는 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거란군은 고려의 방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안용진을 점령하여 고려군의 총지휘부가 있는 안북대도호부를 측면으로 위협하려 하였던 것이다.⁹⁰⁾ 그러나 안용진으로 침입한 거란군은 고려의 중랑장(中郎將) 대도수(大道秀-발해태자 대광현의 아들)와 낭장(郎將) 유방(庾方)의 지휘아래 고려군대와 백성들의 분전에 크게 패하였다. 당시 안용진에는 1,000여명의 고려 군사가 배치되어 있었다.⁹¹⁾ 거란의 다른 한 주력부대는 연주성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연주성에는 2,408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⁹²⁾ 연주성의 군대와 부근 각성의 원군 그리고 백성들의 빛나는 투혼 앞에 참패하고 돌아갔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의 고려군의 뛰어난 전술은 말할 것 없지만 무기도 발달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944년(혜종 원년)에 고려에서 후진에 보낸 공물을 살펴보면 모두 45개 품목인데 이 가운데 칼(刀)·검(劍)·화살(箭)·활(弓)·투구·갑옷 등 무기류가 20개로써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당시 후진이 거란과 전쟁을 수행중이라 무기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수했기 때문에 공물로 보낼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본 대로, 연합하여 협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고려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리고 거란의 군대가 봉산성 전투 이후 적극적으로 공격해오지 못하고 강화를 맺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도 고려의 전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⁹³⁾

90) 김재홍, 앞의책, 37쪽.

91) 위와 같음.

92) 위와 같음.

93) 고려군의 전술의 특징은 성을 중심으로 방어전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진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방어시 성을 이용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淸野戰術, 堅壁固守, 引兵出擊의 전술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세전술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었는데, 즉 적이 침입하면 먼저 들을 깨끗이 치워 적에게 돌아갈 곡식을 깨끗이 치운 뒤 다음 성에 들어가 지구전을 전개하다가 적의 보급이 끊어지고 사기가 저하되면 이를 기다렸다가 허점을 공격하는 전술이었다.(이재범,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계승의

안용진과 연주성 전투에서 참패한 거란군은 더 전진하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하기만 하였다. 이것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팀에서는 적의 이러한 약점을 포착하고 담판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은 누가 그 담판을 하려 적진에 갈 것인가를 물었다. 아무도 나서질 않는데 오직 서희가 자진하여 홀로 나섰다.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상견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소손녕이 자신은 대조(大朝)의 귀인(거란의 부마)이므로 고려팀 사자는 뜰에서 절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서희가 대답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대할 때는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법에 맞으나, 두 나라 대신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하고 반대하였다. 몇 번 오가며 교섭하였지만 소손녕이 듣지 아니하므로 서희가 숙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소손녕은 속으로 그의 인품이 비범함을 알고 당(堂)위에서 대등하게 대할 것을 허락하여 대면하는 의식 절차를 마치고 동서로 마주 앉아 담판을 시작하였다.⁹⁴⁾ 『고려사』에는 담판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식하였다. 또 우리와 국경을 마주 대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을 섬기는 까닭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니 땅을 떼어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에 있으며, 고구려의 계승자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그리고 경계로 말하면 당신들의 수도인 동경도 우리 경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어찌 침식이라 하는가. 또 압록강 안팎도 우리의 경내인데 지금 여진이 그 중간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완악하고 간사스러워 교통이 육로로 가

식, 185~186쪽 참조.

94) 『高麗史』, 列傳 徐熙傳.

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곤란하다.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의 탓이다.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서 성(城)과 보(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장군이 나의 의견을 당신네 나라 임금에게 전달하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고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 이 사실을 거란 성종에게 보고하니 거란 성종으로부터 고려가 이미 화의를 요청하였으니 정전하고 군사를 철수시키라고 하였다.⁹⁵⁾

이 담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선은 서희의 인품을 들 수 있겠다.⁹⁶⁾ 다음으로는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했다고 해서 순수하게 물러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먼저 고려의 군사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⁹⁷⁾ 고려의 군사들은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상비군으로 거란의 군대보다 우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거란이 봉산성 전투에서 패한 뒤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양국관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던 행동을 취 한데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거란의 침구 목적중의 중요한 한가지가 고려와 거란과의 정상적인 국교수립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거

95) 위와 같음.

96) 서희의 인품은 엄정하며 강직하고 예의가 바른 인물이었다. 972년 송에 사신으로갔을 때 ‘행동이 절도있고 예법에 맞다’고 하였으며, 왕에 대해서도 옳은 일은 서슴치 않고 간하였다. 예컨대 성종 때 식량을 강물에 던지는 것을 안된다고 막았고, 왕이 막사에 찾아와 술을 청할 때, 어주(御酒)를 가져오도록 하여 마시도록 하기도 했다. 간언하는대는 직분상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직분이 낮은 자의 간언도 듣도록 했다. 특히 소손녕과의 담판 때는 소손녕이 그의 강직하고 당당한 인품에 빠져서 담판을 이롭게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7) 고려에서는 남방의 주현과는 달리 북방의 주진은 모두 성(城)으로 보호받는 무장도시화하였다. 주진군의 편성은 주현군과 크게 달랐고, 병력 수는 북계와 동계합친 숫자가 대략 14만명이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70% 이상이 항상 북계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로보면 고려에서는 군사상 남방보다 북방을, 북방에서는 동계보다 북계를 중시했었다(이재범, 앞의논문, 184쪽).

니와 고려와 거란은 건국 초부터 정상적인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는 계속 중원의 정부와 통교를 하면서 거란에 대해서는 무도(無道)한 나라로 여겨왔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만부교사건 이후로는 거의 80여년간이나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송이 건국되고 나면서 부터는 거란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지만 과거중원의 다른 국가들하고는 달랐다. 이런 송과 고려가 손을 잡고 협공을 취한다면 거란으로서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진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결국 거란의 입자에서는 고려·송이라는 관계를 고려·거란이라는 관계로 돌려놓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5. 맺는 말

고려와 거란은 2년 차이로 모두 10세기초에 건국되었다. 그런데도 한 세기 동안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대립 내지는 적대관계 속에 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국제관계 속에서의 양국관계는 서로의 국내사정과 외부로부터의 상황이 맞물려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10세기의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평화통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정치사적인 면에서 살펴 볼 때 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목적은 그 나라의 '국가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그 시대 시대에 있어서 그 국가와 민족의 생존상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실현이 대외정책의 목적이라 하여 상대국과 협상 없이 자국의 이익과 실리만을 추구한다면 마찰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거란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고려의 거절적인 태도로 진행된 때가 많았다. 협상이 어려웠던 것은 추구하는 바가 같았기에

어쩔 수 없었는데 이런 관계가 결국 거란의 1차 침입을 불러왔고 그 협상 결과 자연스럽게 양국관계가 1세기 만에 설정되었다. 그 결과 고려는 실질적으로 압록강 동쪽 280리에 이르는 땅을 영유하게 되었고, 또한 고구려의 계승권도 승인 받았으며,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려·거란과의 외교관계를 성립시킴으로 중원으로 진출할 때 배후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되었다.

K C I